

광주지역 빌딩 투자 수익률 봉선동 가장 높아

2분기 1.12%...상무지구·전남대 뒤이어 공실률 12.7% 1분기보다 1.8%p 상승

광주지역 매장용 빌딩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남구 봉선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지구는 감소한 차로 그 뒤를 이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올해 2분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평균 수익률은 0.73%로 지난 1분기보다 0.39%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전(0.68%), 충남(0.6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으며 전

국 평균 1.25%보다 0.52%포인트나 낮은 수치였다.

금남로·충장로와 상무지구에 몰려 있는 오피스 빌딩의 투자 수익률은 0.25%로 전분기보다 0.65%포인트나 떨어졌다. 전국 평균 1.04%보다 0.79%포인트 낮았으며 전국 기준으로 봉선동(-0.15%), 대전(0.05%), 대구(0.17%)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

이와 함께 남구 봉선동의 매장용 빌딩은 광주지역에서 투자수익률이

■광주지역 매장용빌딩 공실률 및 임대료

구분	공실률	증감폭	임대료	증감폭
금남로/충장로	15.3	0.1	24.0	-0.1
금호지구	3.8	3.8	18.6	0.0
봉선동	12.2	1.2	23.7	0.0
상무지구	2.8	-0.3	25.6	0.0
전남대	18.6	-0.7	24.6	0.7
첨단지구	17.3	12.9	16.2	0.0
소계	12.7	1.8	21.9	0.0

(단위: %, %p, 천원/m)
(증감폭은 전분기 대비, 자료: 국토교통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봉선동의 투자수익률은 1.12%로, 광주지역 평균인 0.73%보다 0.39%포인트 높았다. 상무지구(1.10%), 전남대(0.86%), 금남로·충장로(0.79%), 금호지구(0.68%), 첨단지구(0.44%)가

그 뒤를 이었다.

2011년 2분기만 하더라도 금호지구는 11.54%대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지만 불과 2년 만에 수익률이 크게 감소했다. 당시 광주지역 평균이었던 5.69%와 비교하면 광주의 매장용 빌딩 수익률 역시 4%대나 줄었다. 상권이 상무지구 등으로 흡수된 첨단지구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매장용 빌딩 공실률의 경우 광주지역 평균은 12.7%로 지난 1분기보다 1.8%나 높아졌다. 전남대가 18.6%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첨단지구(17.3%)와 금남로·충장로(15.3%), 봉선동(12.2%)이 10%대의 공실률을 보였다. 첨단지구는 지난 1분

기보다 무려 12.9%포인트나 공실률이 상승했다. 금호지구(3.8%)와 상무지구(2.8%)는 낮은 편이어서 대조를 이뤘다.

임대료는 매장용 빌딩의 경우 상무지구가 m당 2만56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대(2만4600원), 금남로·충장로(2만4000원), 봉선동(2만3700원), 금호지구(1만8600원), 첨단지구(1만6200원) 순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상무지구는 1만9600원에서 6000원이나 올랐고, 전남대도 1만8900원에서 5700원이나 상승했다. 오피스 빌딩은 상무지구가 m당 8000원, 금남로·충장로 5800원이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4일 초도 순시차 광주지방 국세청을 방문한 김덕중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와 일자리 창출로 2011년 무역의 날에 '이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남도금형(주)을 현장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성실 기업·서민 세무간섭 말라”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후 첫 광주지방청 방문

김덕중 국세청장은 24일 지난 3월 2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세무서를 방문했다.

김 청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와 7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준비 등 격려를 위한 방문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경제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이번 방문의 목적이 있다.

이날 방문에서 김 청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 편안한 납세, 소통의 문화에 대해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도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청장은 초도순시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체의 업무보고는 받지 않았으며 국

장·서장·과장 등 간부와 실무자까지 함께 참여해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세무서의 세정운영 전반에 걸쳐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서도 성실납세와 함께 지난 2011년 무역의 날에 '이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남도금형을 방문해 그동안의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활동의 세정과 관련한 어려움도 들었다.

김 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고 조용히 추진하되 세무조사는 대내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탈세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가짜서유 등 세법 질서 문란자, 역외탈세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집중하고 성실한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 등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소 해외시장 개척 다문화가족 활용을

무역협회 성공사례 보고서

28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거주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을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4일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지방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성공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 무역 지역본부가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문화 요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해외마케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문화사업은 결혼이민자 등을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결혼이민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무역 전북지역본부에서 최초로 시작된 현재 광주·전남과 울산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사업 첫해인 2011년 베트남 다문화 요원 E씨는 베트남과 5만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광주·전남 지역의 조미김 수출업체도 중국 다문화 요원의 도움으로 까다로운 중국의 식품통관장벽을 뚫고 5만 달러 상당의 김을 수출했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은행 '청소년 금융교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금융감독원 광주지원과 함께 24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2층에 위치한 KJB금융박물관 금융교육실에서 '청소년 현장체험 금융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금융교실은 오는 26일까지 지역 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광주은행 제공>

■세일글

“지역중소·소상공인 적극 지원”

정순일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장

“국가고객만족도 7년 연속 1위 은행으로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은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취임한 정순일(55) 신임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장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본부장은 “소외된 이웃

을 위한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86년 입행 뒤 오름랜드지점장, 서교동수석지점장, 글로벌사업본부장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업 10곳중 9곳 “경기회복 기미 못 느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9곳가량은 아직 경기 회복 기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기 회복을 느낀다는 응답은 13.0%로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각각 나타났다 24일 밝혔다.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판매부진(41.5%), 수익성 악화(28.3%), 주문물량 감소(23.0%), 자금사정 악화(6.5%)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현재의 경기가 작년 말 또는 올해 초에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경영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올해 경제상황을 100으로 하고 지금까지의 실제 경제상황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평균은 70.5에 그쳤다.

자동차(80.3), 섬유·의복·신발(80.0), 음식료·생활용품(77.3), 조선·플랜트(76.3), 철강·금속(74.5) 등은 평균을 웃돈 데 비해 반도체·디스플레이(56.6), 가전(57.3), 석유·화학·에너지(63.4), 정보통신기기(67.9)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기업들은 하반기 경기도 상반기보다 나쁠 것이라는 응답(26.8%)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21.4%)보다 높았다.

경기침체 대응책으로는 절반 이상이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53.0%)을 들었다.

기업들은 하반기 경기도 상반기보다 나쁠 것이라는 응답(26.8%)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21.4%)보다 높았다.

경기침체 대응책으로는 절반 이상이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53.0%)을 들었다.

자동차(80.3), 섬유·의복·신발(80.0), 음식료·생활용품(77.3), 조선·플랜트(76.3), 철강·금속(74.5) 등은 평균을 웃돈 데 비해 반도체·디스플레이(56.6), 가전(57.3), 석유·화학·에너지(63.4), 정보통신기기(67.9)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기업들은 하반기 경기도 상반기보다 나쁠 것이라는 응답(26.8%)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21.4%)보다 높았다.

경기침체 대응책으로는 절반 이상이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53.0%)을 들었다.

기업들은 하반기 경기도 상반기보다 나쁠 것이라는 응답(26.8%)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21.4%)보다 높았다.

경기침체 대응책으로는 절반 이상이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53.0%)을 들었다.

▲ 코스피지수 1912.08 (+7.93)	▲ 코스닥지수 543.60 (+1.96)	▲ 금리(국고채 3년) 2.89% (+0.01)	▼ 원·달러 환율 1112.70원 (-4.30)
-------------------------	------------------------	----------------------------	----------------------------

국세청 하반기 기업 세무조사 축소

국세청이 하반기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애초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늘려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었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자 이런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 기업과 숫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기업 세무조사를 기존보다 줄이는 기조로 선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통상 한해 1만8000~1만9000건의 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기획재정부,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

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한 비공개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기재부 등 세정 당국은 앞으로 5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공유를 통해 11조5000억원 이상의 지하경제 양성화로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보고시 제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비율은 전체의 0.7% 이하다. 매출 총액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현재 49만 개이니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기업은 최대 3400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연산 참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을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을 요리 토종 참을닭 / 울 청둥오리 / 울 삼계탕

한방 요리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춘달백숙 삼계탕

토종참을닭 (9인분 식사소모임) **40,000원**

춘달백숙 **38,000원**

울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울닭 062)515-5757(울칠울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입학문의 ▶ 062-605-1115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www.kwangshin.ac.kr

【 주요일정 】

1.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② 전 형 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일) 오후 2:00

④ 등록 기 간 : 2013. 8. 27(화) - 29(목)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 과	모집정원	전 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
	석사	신 학 과(Th.M.)	○	구약,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비, 선교, 목회상담, 주경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신학대학원	석사	신 학 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믿음이 있는 대학·인생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2로 36